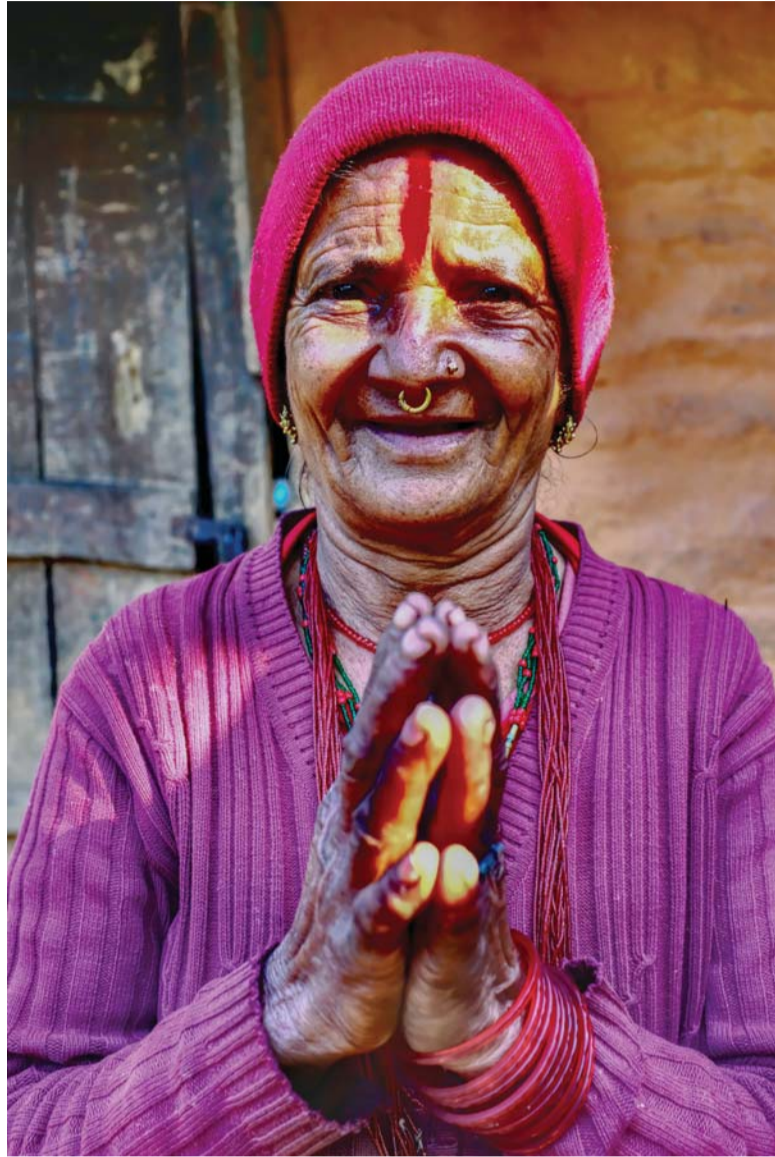


# 활력 넘치는 '아시아의 미소'

김옥열 사진 초대전  
갤러리 생각상자 4월12일까지  
16일 사진집 출판 기념회도



김옥열 사진전 '아시아의 미소' 전이 오는 4월12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린다. 네팔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

지난해 네팔 안나푸르나를 방문했던 김옥열 사진작가는 마을 산책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전남 잠시 눈 인사를 나눴던 할머니가 반가웠던 그는 집 구경을 해도 되느냐 물었고, 할머니는 흔쾌히 집안 이곳 저곳을 소개해줬다. 시종 일관 웃는 모습이었던 할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청하자 '나마스테' 하며 '활활 웃음'을 보여줬다. 그 모습이 언제나 자신을 반갑게 맞아 주던 친할머니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국에 돌아온 후 사진을 크게 인화해 사무실에 걸어뒀다. 늘 할머니가 말을 건네는 것 같았고 '행운의 부작'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사진은 김 작가가 처음 여는 개인전의 포스터 사진이 됐다.

김옥열 사진작가(다큐디자인 대표)가 갤러리 생각상자(관장 주홍) 초대로 오는 4월12일까지 한달간 초대전을 연다.

'아시아의 미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만날 수 있다. 2012년 사진 촬영을 위해 처음 미얀마를 방문했던 그는 이후 네팔, 부탄,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곳곳을 찾아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앵글에 담아왔다. 원래부터 풍경 사진보다는 인물 사진을 즐겨 촬영했던 그에게 아시아에서 만난 남녀노소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은 깊은 인상을 줬다. 친진난만하게 웃는 소녀의 모습, 수줍은 미소를 감춘 소녀, 이빨 빠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리는 선술집 아저씨. 그의 사진에 담긴 인물들은 밝고 환하다.

김 작가는 전시회 개막과 함께 'Asia on the road-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 미얀마' 사진집도 출간했다. 200페이지 분량의 사진집에는 미얀마 사람들과 삶의 일상, 풍경 등이 담겼다. 그는 'Asia on the

road' 타이틀로 국가별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전시회 개막식과 출판기념회는 16일 오후 3시 열린다.

김 작가는 광주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모던사진클럽 빛여울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남도의 섬 전국사진공모전 최우수상(2018), 제21회 부일전국사진대전(2014) 등 전국 공모전에서 15차례 입상했다.

김 작가는 "아시아는 가난, 질병, 전쟁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는 걸

느껴 그 일상적인 따뜻한 모습을 담았다"며 "근로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등 광주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저보다 사진 테크닉면에서는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진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었고, 제 자신의 작업의 방향성도 찾고 싶어 전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일요일 휴관. 문의 062-676-898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8월 30일까지 시·소설

담양군이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면앙정 송순(宋純:1493~1583)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7회 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와 소설 2개 분야로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관련 인물과 관계된 창작품 중 미발표작 또는 공모일

(2월28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발간된 단행본이면 된다. 공모는 8월30일까지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1명에게도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순태 송순문학상운영위원장은 "송순문학상은 담양 관련 공모 제한으로 출품을

원하는 작가들이 담양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탄생했다"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역량있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모 희망자는 8월30일까지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문화체육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문의 061-380-2804. /박성천 기자 skypark@

# '유년시절의 봄' 회색 도시에 흩날리네

김병중 '송화분분' 전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  
14일~4월 7일

한국화가 김병중 작가는 예수를 한국적 시선으로 담아낸 '바보 예수' 시리즈와 '생명의 노래'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 탄생한 '생명의 노래'는 간결한 그림 속에 담긴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한 후 개인 작업에 몰두해온 김 작가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에서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작품전을 연다.

전시 주제는 '송화분분' (松花紛紛).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전시 제목처럼 봄이면 바람결에 분분히 날리는 노란 송화가루가 화면에 가득하다. 어릴적 농촌이 많은 마을에서 자란 김 작가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송화가루를 볼 때마다 그 아득함을 담아두고 싶었다. 작가는 이 전시의 의미를 "이 회색 도시에서 유년에 본 몽환적 봄의 기억을 소환한, 자전적 전시"라고 했다.

전시작들은 '생명의 노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익숙한 것들, 예를 들면 물감의 변질이 인상적인 붉은색의 커다라 꽃이 라든지 말과 종달새, 닭, 소나무, 친진난만한 소년이 은통 노랗게 물든 화면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소나무의 생명 입자'인 송화가루는 세



'송화분분-십이세의 지화상'

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상징이자 생명의 신비를 나타낸다. 근작들은 이전 작품보다는 좀 더 추상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그린 듯 못 그린 그림' (미술사가 전영백)같은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친근감을 부여한다. 작가는 '송화분분' 작업에 막중이, 막 등 전통 매체와 함께 실제 소나무 꽃가루도 일부 활용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쿠바,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카리브해 등 해외 여행에서 만난 풍광을 담은 작품 등 모두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한국미술작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김 작가는 베이

징 비엔날레, FIAC 등에 참여했으며 중국 금일미술관, 뉴욕 갤러리 HQ, 파리 갤러리 몽뜨니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해 광주시가 수여하는 허백련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전북 남원에 자리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는 김 작가의 작품을 상설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잘 지어진 미술관 자체로도 관람객들이 발길이 어지는 곳이다. 문의 02-720-10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통·현대 아우른 공예아트 한자리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4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2019년 기획전으로 '북구공예아트상품전'을 24일까지 개최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트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시로 도자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인두공예, 짚공예, 칠보공예, 규방공예, 가죽공예, 옷질공예, 원예공예, 천연염색, 탕화, 민화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됐다.

도자공예 분야에서는 달항아리 작가 김기현씨를 비롯해 이은석(평촌도예공방), 이경숙(수수공방), 손동진(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의공예명장), 이지현(휴 이야기 도예공방), 정우식(휴이랑꽃이랑도예공방)씨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최경현(광주전통공예학교의 무형문화재하류



송경태 작 '거리에서'

소목장 보조자), 박미연(전통짜맞춤바른공방, 한경희(공예명장)씨 등도 참여했다.

문의 062-410-663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문화사 강좌 수강생 모집  
인문학교육연구소 20일 개강

인문학교육연구소(소장 양진호)가 오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양문화사입문강좌 '오전엔인문학'이 오는 20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된다. 이 강좌는 서양문명의 탄생지인 고대 그리스부터 정신분석학이 탄생하는 20세기 유럽에 이르기까지 서양문명 3000여 년을 연 4학기에 걸쳐 살펴보는 과정이다.

첫 학기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를 즐긴다'는 8회에 걸쳐 신화·문학·철학·미술 등을 통해 서양 문명의 원형을 파악한다. 양진호 소장이 강사로 나서고 해당 교정의 주요부분을 발췌해 낭독하고 주제들을 뽑아 이야기를 나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교육공간 오름' 3층(광주시 북구 임동 20-1)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학기당 8만원이다. 문의 070-8862-606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근접합니다  
사랑합니다

#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로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  
HOTEL & RESORT CLUB